

■ 르포 - 송하동 연탄공장의 겨울 준비

시민단체 보조금 '유리알 감시'

무등산 탐방로 정비

약사사~중머리재 1.7km

광주시, 투명 관리 시스템 구축 '멋대로 집행' 막아

광주시가 내년부터 민간에 대한 모든 보조금을 통합·관리하는 '유리알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시가 기업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모든 보조금의 쓰임새가 유리알처럼 투명해지고, 해당 단체 등의 보조금 집행도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민간 경상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인 '유리알 카드'를 도입, 전면 시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민간에 대한 모든 보조금을 통합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3억원을 들여 민간보조금 전용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시험가동하고 있고, 자치구 및 자문 보조금까지 시행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서버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해온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이 멋대로 보조금을 집행, 감사원 등으로부터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 초 유리알 카드제도를 도입해 438개 단체 1천24명에게 경상보조금 집행에

사용할 유리알 카드를 발급했고, 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금은 시의 세입으로 환원해왔다.

올해 광주시가 지원한 보조금은 기업 이전 인센티브 등 민간 경상 보조금 578억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10억원, 민간행사 보조금 121억원 등 모두 709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보조금 집행 전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행정 능률도 크게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등산로 훼손이 심한 무등산 약사사~중머리재 1.7km 구간 등산로가 겨울철 안전산행을 돕기 위해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된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11일 "약사사~중머리재 구간에 목재계단을 설치하고, 토사유실을 막기 위해 배수로를 내는 등 친환경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공원관리사무소는 연말까지 새인봉삼거리~중머리재 1.2km 구간에 돌을 깔고 로프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원관리사무소는 앞서 약사사~새인봉삼거리 0.5km구간의 노면을 정비하고, 목재 계단을 보수했다.



지난 8일 광주시 남구 송하동 남산 연탄 공장 출하장. 한 직원이 벨트 컨베이어에서 나온 연탄을 익숙한 솜씨로 2.5t 트럭에 옮겨 싣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高유가' 속 판매량 연일 고공행진
인부들 검은 얼굴에 웃음꽃 '활짝'

연일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푸대접을 받던 연탄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연탄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오전 10시 광주시 남구 송하동 남산산업 연탄공장 출하장. 330.58㎡ 규모의 석탄 저장창고를 떠난 분탄(粉炭·가루탄)이 연탄크기의 실린더로 들어가지마자 '쿵~'하는 소리와 함께 연탄으로 찍혀 나왔다. 길이 30m·폭 40cm의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or) 2대에서 까맣고 윤이 나는 연탄이 줄지어 나오자 목에 흰 수건을 두른 인부 5명은 익숙한 솜씨로 연탄을 2.5t 트럭에 차곡차곡 쌓았다. 이미 얼굴은 검게 변해 흰이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1천~2천장 단위로 연탄을 실은 트럭은 잇따라 광주 시내를 비롯 한 화순·나주·담양·장성 등지로 떠났다.

연탄의 주요 소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영세 서민. 하지만, 최근엔 음식점·이발소·구멍가게 등은 물론 시설재소 하우스 등에서도 연탄을 많이 찾고 있다.

지난달 남산산업의 연탄 판매량은 1천500만~1천800만장. 지난 1990년대 1억5천만장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연탄 생산량은 최근 몇 년 새 다시 늘고 있다. 2004년 1천

390만 장에서 2006년 1천800만 장으로 29.5% 증가했다.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연탄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연탄 가격은 장당 340원인데 비해 보일러용 등유 가격은 4 당 1천15원으로 전주보다 2.1%나 올랐다.

올 겨울엔 '라니냐'가 발달하면서 폭설이나 한파 등 이상 기상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연탄 수요는 더 늘 전망이다.

광주지역 연탄 사용 가구는 ▲2004년 1천810가구 ▲2005년 2천48가구 ▲지난해 2천977가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남산 산업 김덕원 상무는 "올 겨울 들어 유가 급등으로 연탄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상수도 배수관 세척
지원동~임동 6.4km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28일까지 지원동 배수관 내부를 세척한다. 이번 세척은 지난 1968년 지원동 배수관이 시설된 이후 처음이다.

동북면에서 원수를 공급받은 지원동 배수관은 동구 지원동에서 임동까지 6.4km에 달하며 직경은 최대 1천mm 규모다. 세척은 작은 알갱이를 강한 수압과 함께 흘러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수도본부는 배수관 내부 이물질이 제거되면 통수능력이 1일 3만여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자체 운영 중인 동북면에서 1일 26만, 물값을 지급하는 주암댐에서 1일 20만을 각각 공급받고 있는데 주암댐에서의 공급량을 줄일 수 있어 연간 물값 20억 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관서 유도하게 해달라"

광주시유도협회, 문광부에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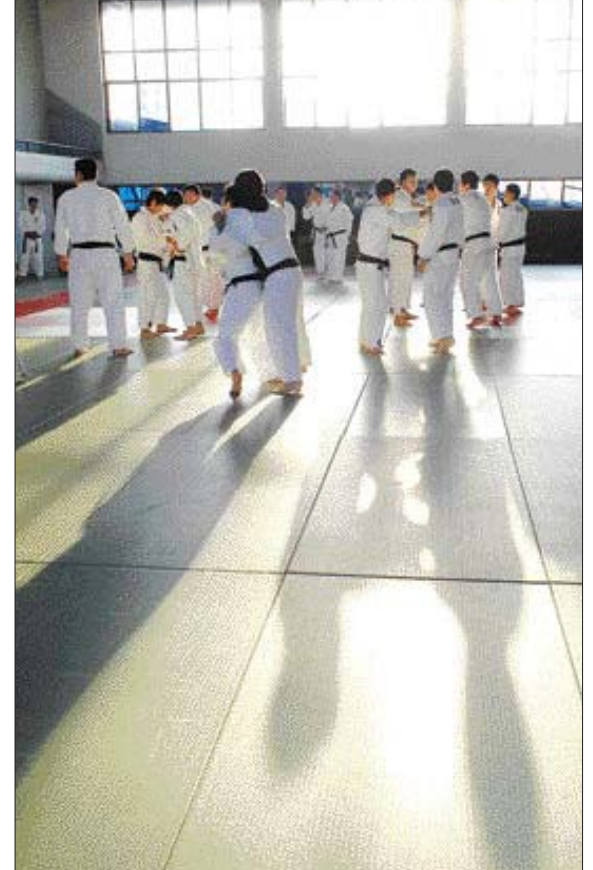
아시아문화전당 부지에 포함돼 보존이 결정된 옛 전남도청 앞 상무관의 리모델링을 앞두고 건물을 사용해 왔던 광주시유도협회가 문화관광부에 "상무관을 훈련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폐관식과 함께 마지막 훈련을 한 광주시유도협회 우대규 전무이사는 "5·18 민주화운동 종지부 상무관은 광주지역 유도인들이 50년 이상 땀 흘려온 상징적인 장소다"며 "선배 유도인들의 흔이 담긴 역사적인 곳이니 만큼 리모델링을 한 후 계속 사용하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상무관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60구가 넘는 희생자들의 주검을 안치해 분향소 역할을 하는 등 역사성을 지니고 있어 보존이 결정됐다.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중순까지 상무관을 비워달라고 유도협회에 요구했으나, 광주시의 중재로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10월15일까지 사용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기획단의 이병훈 단장은 "12월께 상무관 공간활용에 대한 운영결과가 나오면 그때 유도장 사용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훈련' 광주시유도협회 소속 선수들이 지난 1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상무관 유도장에서 마지막 훈련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혼수, 가전, 가구, 사무용품 초특가 SALE!!

Advertisement for 'Yohanine' (요한이네) featuring a grid of various household appliances and furniture. The items include refrigerators, washing machines, air conditioners, and office equipment. The ad is set against a red and yellow background with large promotional text.

요한이네 가전, 가구, 사무용품 초특가 SALE!!

할인매장